

# 프로야구 순위 경쟁 '대혼전'

### 공동 1위·공동 4위, 각 두팀... 6위는 네 팀 경쟁 절대 강자·약자없는 4월 순위 싸움 예측 어려워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대혼전의 4월이 계속되고 있다.

개막 전 판도 전망에서 '2강'으로 꼽힌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는 예상대로 공동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 6위와의 승차가 2경기에 불과하다는 게 함정이다. 게다가 공동 6위만 무려 4팀이다. 개막 이후 20여 일이 흘렀지만 10개 구단의 순위는 더 촘촘히 밀착됐다.

공동 1위 NC·LG를 3위 삼성 라이온즈가 반 경기 차로, 그런 삼성을 공동 4위 kt wiz·SSG 랜더스가 역시 반 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다.

공동 6위인 두산 베어스·KIA 타이거즈·롯데 자이언츠·한화 이글스가 턱밑까지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격의 7연패 속에 최하위로 추락한 키움 히어로즈도 언제든 반등이 가능한 팀이라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게 됐다.

1위부터 공동 6위 4팀까지 무려 9개 팀이 2경기 차 안에서 서로 꼬리의 꼬리를 물며 대혼전을 펼치고 있다.

저마다의 강점과 약점이 너무나도 뚜렷해 순위 싸움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NC는 나성범, 양의지, 예런 알테어의 중심타선이 무시무시한 화력을 뽐내고 있지만, 투종 에이스 구창모의 공백 탓인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역시 투종 선발진이 고민인 LG는 트레이드로 좌완 선발 함덕주를 영입했지만, 차우찬의 빈자리가 여전히 아쉽다.

투타의 핵심인 최재홍, 오재일 없이도 상위권을 점명한 삼성은 외국인 투수 벤 라이블리가 기복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최대 변수다.

지난해 정규리그 3위 팀인 kt는 리그 최고의 타자였던 벨 로흐스 주니어가 일본으로 떠났다.

SSG는 추신수와 최주환으로 공포의 타선을 완성했다. 다만 외국인 투수 아티 르위키의 연구리 부상 등 마운드가 뼈저리게 있다.

두산은 오재일과 최주환을 잃었고, 외국인 원투펀치인 라울 알칸타라, 크리스 플렉센도 팀을 떠났다.

KIA는 양현종의 공백이 뼈아프고, 롯데는 '필승조'인 구승민, 박진형의 초반 난조가 불안 요소다.

지난해 10위 한화는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 영입과 함께 쉽게 지지 않는 팀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상위권을 넘볼만한 전력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를 지워내지 못하고 있다.

키움은 외국인 투수 조쉬 스미스를 내보내고 재영입한 제이크 브리검이 5월 중순 팀에 합류한다.

쉽게 질 팀도 없지만, 쉽게 이길 팀도 없어 치열한 순위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개인 최다 15호골 '랑' 2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EPL 29라운드 사우샘프턴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하고 있다. 경기에 선발 출장한 손흥민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45분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키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토트넘은 2-1로 역전승을 거두며 리그 6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 '사격 황제' 진중오 극적인 도쿄행 합류

### 국가대표 선발전서 2위 도약

한국 사격의 '간판' 진중오(42·서울시청)가 태극마크를 달고 2020 도쿄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진중오는 이달 16일부터 창원국제 사격장에서 진행 중인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10m 공기권총 부문에서 2위로 도쿄행 티켓을 따냈다.

선발전 합산 점수 상위 두 명까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진중오는 극적으로 2위를 차지했다.

1차전에서 579점을 쏘 9위로 불안한 출발을 한 진중오는 4차전까지 7위(2313점)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22일 열린 마지막 5차전에서 585점을 쏘며 뒷심을 발휘했다. 특히 마지막 발을 10점 만점을 쏘며 극적으로 한승우(창원시청)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2004 아테네 올림픽 사격 남자 50m 권총 은메달을 시작으로 올림픽에서 총 6개의 메달(금 4·은 2)을 목에 건 진중오는 이제 5번째 올림픽에서 자신의 7번째 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 대회에서 선전한 서귀포시청 이수정(왼쪽)·최수미·황미영.

## 서귀포시청 육상팀 전국육상대회 선전

이수정 도 신기록 금메달  
황미영 세단뛰기 은메달  
최수미 800m 3위 동메달

서귀포시청 육상팀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경북 예천군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은·동메달 각 1개씩을 목에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에 따르

면 대회 첫째 날 포환던지기 종목에 참가한 이수정은 16m67로 본인이 세운 제주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종전 본인 최고 기록인 16m51보다 16cm를 더 던진 것이다.

황미영은 대회 둘째 날 세단뛰기에 참가해 본인 최고기록 13m04에 못 미친 12m40으로 아쉽게 은메달을, 800m에 참가한 최수미는 결승에서 2:15.28의 성적으로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오은지기자

## 독주하는 우승 후보 전북, 쫓아가는 울산

### K리그1 12R 순위 경쟁 가열 다크호스 제주Utd도 가세

시즌 첫 맞대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프로축구 K리그1의 '우승 후보'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의 순위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제주 유나이티드까지 상위권 경쟁에 가세했다.

K리그1 12개 팀이 11라운드까지 모두 한 번씩 대결을 마치면서 2021 시즌 K리그1은 한 바퀴를 돌았다. 이번 주말 펼쳐지는 12라운드부터는 더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선두 전북(승점 27)은 24일 오후 7시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강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12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은 이번 시즌 11개 팀을 상대로 무패(8승 3무)를 기록하며 1위를 점주하고 있다.

전북은 10위 강원(승점 12)을 제물삼아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강원은 지난 시즌 전북을 상대로 2

전 전승을 거두며 천적으로 떠올랐으나, 올 시즌 3라운드 첫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2-1로 승리한 바 있다.

최근 2경기 무승(1무 1패)에 그쳐 갈 길이 바빠진 울산은 11위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10)를 상대한다.

시즌 첫 경기에서 강원을 5-0으로 격파하는 맹공을 펼쳤던 울산이지만, 직전 3경기에서는 1득점에 그치는 등 점자 발골이 식고 있다.

김인성과 이동준이 4골씩을 기록하고 있으나 김지현과 힌터제어 등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득점이 터지지 않는 게 고민거리다.

마침 인천은 리그 최다 실점(21실점) 팀이다.

올 시즌 첫 맞대결을 포함해 인천과 최근 10차례 만남에서 6승 3무 1패를 기록한 울산은 '다득점 승리'를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하지만 '생존왕' 인천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을 기세다.

6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1무 4패로 고전하며 최하위로 떨어졌던 인천은 11라운드에서 성남FC를 3-1로 제압해 6경기 만에 승리를 따내

고 반등했다. 아길라르와 네게바가 각각 4골 3도움, 2골 2도움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한 무고사가 컨디션을 더 끌어올린다면 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덧 3월까지 치고 올라온 제주(승점 18)는 2위 자리를 넘본다. '승격팀'이지만 현재까지 단 1패(4승 6무)만을 당하며 선전하는 중이다.

특유의 '질식 수비'로 리그 최소 득점 2위에 오른 제주도 시즌 초반 공격수들의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게 고민이 있으나, 이달 들어 주민규(5골) 등의 득점포가 터지면서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다.

제주는 4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17)를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한다.

포항 역시 6경기 무승(2무 4패)을 겪고 3연승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양보없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또 나란히 승점 15를 쌓은 5위 수원 삼성과 6위 성남이 맞붙고, 승점 13을 쌓은 7위 광주와 8위 대구FC가 만나 중위권 다툼을 펼친다. 연합뉴스

제주감귤농협 창립61주년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감귤농협인과 함께한 60년! 새로운 100년 을 준비하는 희망찬 제주감귤농협

제주감귤농협의 역사가 곧 제주감귤농협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인증 브랜드 "불로초"감귤

"2021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11년 연속 대상으로 퍼스트클래스 달성"

"오로지 조합원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2020 자랑스런 경영인 대상수상 조합장 송창구

제주감귤농협협동조합 www.citrus-jeju.com 서귀포시 신촌로28  
Tel. 064-739-5401~5 Fax. 064-739-5406